지하철 안전사고 왜 줄어들지 않나

'빨리빨리' 문화에 스크린도어 등 안전장치도 엉성

안전사고 66% 넘어짐·16% 끼임
서울~천안 구간 스크린도어 없어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대책 세워야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지하철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환승역 별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레일의 '2017년 일반철도 안전사상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은 넘어짐이 1247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문 끼임은 297건(15.7%), 부딪힘 사고는 117건(6.2%)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철도학회의 '국내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고찰' 논문에 따르면 전도사고와 출입문 사고가 전체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교통공사 기준으로 총 사고 건수 2672건 중 역 구내, 열차 내 전도사고와 출입문 관련 사고를 합치면 1786건으로 전체의 67.1%에 해당했다.

#. 13일 오전 9시 천안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급행 전동열차 안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1-1번 칸이 있는 열차 앞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빠른 환승을 위해 사람들은 열차가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미리 이동하고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할 때쯤 문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빨리 내리겠다고 옆 사람을 밀치는 무개념 승객도 보였다.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13일 오전 9시 10분. 영등포를 경유해 서울역까지 가는 급행 전동열차를 탄 승객들이 환승을 빨리하기 위해 1-1번 승강장이 있는 열차 문 앞으로 몰렸다.

13일 오전 9시 11분. 시민들이 환승을 빨리하기 위해 전동차와 안전펜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논문은 구내 전도사고 원인은 대개 승객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잡 시간대에 다른 승객에게 떠밀리거나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 제3자 간 충돌사고 등이 발생했으며, 바닥 및 계단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논 슬립 자재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동양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등을 계산해 환승역을 설계해야 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임의로 수요를 예측해 그때마다 환승통로를 만들다 보니 혼잡도가 높아져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천안간 급행 전동열차가 정차하는 해당 역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외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 스크린도어조차 없어 전동차와 안전펜스 사이를 걸어 다니며 위험한 곡예를 하는 사람도 몇몇 보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017년 말까지 총사업비 5709억 원을 투입해 광역철도 139개 역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광역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되면 승객 선로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박 교수는 "운영기관에서 안전에 관한 투자를 해야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스크린도어도 밀폐형, 반 밀폐형, 난간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각 역과 노선마다 특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며 "역사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강북구 우이동유원지 사업 6년만에 재개

박원순 "상생방안 찾아 나갈 것"
내년 관련 인·허가 절차 후 착공

박원순 서울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한 달 살이 후 조기 정상화를 약속한 우이동 '파인트리' 사업이 연내 재개된다.

서울시는 우이동유원지 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부산 소재 건설업체인 삼정기업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삼정기업은 지난 4월 한국자산신탁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9월 10일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됐다.

그동안 파인트리콘도 사업은 신규 사업자 선정 실패, 콘도산업 침체, 계약 무산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사업시행자·강북구와 '사업 정상화 지원 TF'를 구성, 2019년부터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재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콘도시설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한다. 북한산을 가리고 있는 일부 동은 층수를 낮출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옥탑방 살이를 마무리한 후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우이동유원지 사업의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6년이란 장시간 동안 강북지역의 애물단지로 남아있던 구 파인트리 문제는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였다"며 "사업자와 주민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박원순 서울 시장. /손진영 기자

잠실본동 주민센터 부지 이전… 근린공원 확대

서울시, 계획 변경안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본동 230번지 외 2필지 7605㎡에 대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결정 내용은 잠실본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주민센터 부지와 잠실근린공원 부지 일부 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간 위치와 용도지역 변경이다.

이번 변경으로 송파구는 기존 주민센터 부지를 공원 진입부로 조성해 공원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공원 내 산재돼 있는 노후 경로당과 개방화장실은 공공청사에 통합한다. 공원 면적을 확대해 공원 활용성도 높인다.

신축예정인 공공청사는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개발된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게 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인지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광진구 화양동 111-85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변경안을 심의 보류했다. /김현정 기자

2018 청년인재 매칭데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8 청년인재 매칭데이' 행사장에서 한 학생이 면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 위한 '약수보금자리' 문열어

중구, 기초수급자들에 임대

서울 중구는 오는 19일 약수동에 취약계층을 위한 안식처 '약수보금자리'의 문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약수보금자리는 오랜 기간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해 기초수급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의 주거복지사업이다.

이번에 완성된 약수보금자리 1호는 약수동 동호로8라길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다. 7평 크기에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 원룸 구조로 되어 있다. 구는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에어컨, 밥솥 등 생활가전을 무상 제공한다.

약수보금자리 사업은 지난 4월 약수동 주민센터가 대상지 5곳을 확보하고 해당 건물주가 5년간 무상 임대해주기로 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입주자에게 매월 나오는 주거급여 21만원은 임대료 성격으로 약수보금자리 주민협의회에서 받는다. 이는 향후 저소득 가구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구는 내년부터 매년 10가구씩 3년간 30개의 보금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빈 공간을 재생해 도시도 살리고 주민 삶도 끌어올리는 일을 다른 분야로도 확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약수보금자리 리모델링 공사 모습. /중구청

9월 주택·토지 재산세 2.9조 서울시, 내달 1일까지 징수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까지 시 소재 주택·토지 재산세를 납부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 납부 대상은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386만건(2조 8661억원)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 부과된 주택 및 토지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1만5000건(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7000건(1.5%), 공동주택이 9만1000건(3.5%), 토지가 1만7000건(2.4%) 증가했다. /김현정 기자

남산공원 북측순환로 정비 완료·개방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15일 남산공원 북측순환로의 정비를 마치고 전면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산공원 대표 산책길인 북측순환로(국립극장~남산케이블카)는 만들어진 지 11년이 넘어 도로 파손이 진행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전 구간을 정비했다. 훼손된 탄성포장은 칼라아스콘과 천연 황토로 교체 완료했다.

북측순환로 끝 지점에서 단절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남측순환로까지 연결되도록 연장했다. 시각장애인협회 중구지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파악·보완했다.

시는 또 석호정(국궁장)과 남산 소나무 힐링 숲 인근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천연 황톳길 215m를 만들었다. 세족장과 신발장도 설치해 이용객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박미애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정비 기간에 통행 제한 등으로 인한 불편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산공원 북측순환로가 더욱 걷기 좋은 길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